

## 사회정의와 상담심리의 역할

최 가 희<sup>†</sup>

계명대학교

상담심리학자들이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사회변화와 사회정의를 위한 행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고정관념과 차별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억압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움직임이 최근 북미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상담심리학자들이 자신의 사회화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대중강연, 심리교육, 로비활동, 언론을 통한 설득 등을 통해 소외집단의 고통에 기저 하는 사회 환경적 맥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변화를 이루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정의적 접근의 핵심이다. 본 논문은 사회정의적 접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문화 상담의 원리를 알아보고, 사회정의의 실행과 상담자 훈련모델 및 사회정의적 연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상담심리학이 사회정의적 접근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정의적 접근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사회정의적 접근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이후 활발한 논의를 위한 장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사회 환경적 맥락, 사회정의, 다문화 상담, 훈련모델

---

<sup>†</sup> 교신저자 : 최가희,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봉경관 246호 / Tel : 053-580-5381, E-mail : choigh@kmu.ac.kr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겪고 있는 주호소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과 유능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상담의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Teyber, 2000).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 감정에 대해 명료화하고, 자신의 주호소를 탐색할 때 타인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협력적인 상담관계를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의 과제는 내담자가 변화의 주체로서 자신에 초점을 맞추고, 치료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담자의 주호소의 근원이 외부적인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때 상담자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해체된 가족 속에서 부모로부터 적절한 케어와 지도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내담자들과 작업할 때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장애인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내담자의 내적인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한 것일까?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외상경험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외에 다른 전문적인 도움이 가능할 수는 없는 것일까?

상당수의 내담자들이 사회 환경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내담자의 문제행동을 개인의 내적요인에만 돌리는 전통적인 심리치료모델은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다른 방향의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정안숙, 2015). 이와 관련하여, Albee(2000)는 환경이 개인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나서야 도움이 주어지는 방식의 전통적인 치료모델은 내담자에게 지대

한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과 가난, 차별, 착취, 편견 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치료모델을 넘어선 예방적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iselica(2004)는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미혼모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감기나 다른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 외에 예방적 접근을 상담전문가의 역할로 포함했다. 예방적 접근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치료모델과는 다른 의미에서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접근이다(정안숙, 2015).

개인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자극들을 다층적 수준에서 바라볼 때 예방적 접근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Bond & Hauf, 2007). 이러한 다층적 수준은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보다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으며,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모형은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학적 모형의 핵에는 개인체계(individual system)가 존재하고, 개인체계는 인지적, 정서적, 생화학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개인들은 가족, 이웃, 친구, 동료 등과 상호작용하며, 이들 인접환경 속에서 개인의 경험을 미시체계(microsystem)라 한다. 다음으로, 중간체계(mesosystem)는 미시체계 사이의 관계, 즉 한 개인이 소속된 두 개 이상의 환경 간 상호작용을 일컫는 것으로, 예를 들면, 한 개인의 학습능력은 학교수업의 질, 가정에서의 케어와 지도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부체계(exosystem)는 개인에게 간

접적으로 관련되는 환경구조들로, 지역사회, 언론, 시민사회 등이 포함될 수 있다(이나빈, 안현의, 2016). 외부체계의 예로는, 부모의 직장을 들 수가 있다(정안숙, 2015). 부모의 직장 에 자녀가 소속되거나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직업에 따라 자녀에 대한 교육, 방과 후 학습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등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macrosystem)는 각 문화의 이념 및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체계, 공공정책, 문화규범 등이 이에 속한다(이나빈, 안현의, 2016).

생태학적 모형에 근거했을 때, 상담심리학자들은 사회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개인의 내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참여자로서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정의해왔다고 볼 수 있다(Vera & Speight, 2003). 그러나 상담심리학자들의 영역이 상담실 및 개인적인 수준에 국한되었을 때 그 효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담심리학자들이 개인수준의 변화를 넘어서 공동체로 그 작업의 영역을 넓히고,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을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움직임이 북미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Burnes & Manese, 2008; Burnes & Singh, 2010; Caldwell & Vera, 2010; Fox, 2003; Ivey, 2008; Toporek, Lewis, & Crethar, 2009; Vera & Shin, 2006; Vera & Speight, 2003). 이러한 움직임은 상담심리학자들이 미시적인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 모두를 자신의 역할로 포함했을 때 내담자의 변화를 넘어서 사회의 변화에까지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Kiselica, 2004).

현재 한국사회는 흡수저 대 금수저와 관련

된 신 계급사회론의 대두 및 N포 세대의 등장, 무한경쟁의 사회분위기, 맘충, 여혐, 한남충 등의 용어로 대변되는 집단 간의 갈등 및 분열, OECD 자살률 1위, 청소년 폭력 급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고, 상담심리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고 역할 재정립을 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사회정의와 관련된 국내의 심리학 관련 연구는 사회심리에서 먼저 이루어졌으며(조궁호, 2002; 최상진, 김기범, Yamahuchi 1998; 구자란, 2010에서 재인용), 상담 관련 영역에서는 구자란 (2010)이 상담자의 사회정의 옹호에 따른 내담자에 대한 인상형성을 연구하였고, 민문경과 안현의(2014)는 사회인지이론을 통해 국내 대학생들의 사회정의 실천이 예측가능한지 검증한 바 있다. 이어서, 민문경, 이나빈, 안현의(2015)가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공감능력이 사회정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한편, 임은미, 여영기(2015)는 사회정의적 접근을 진로 진학상담에, 임은미(2015)는 옹호상담을 학교 상담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임은미(2016)는 이어서 상담자의 사회문제 옹호 측정을 위해 사회문제 옹호 척도를 제작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렇듯 사회정의와 옹호의 개념이 일반인과 상담 장면이라는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나, 사회정의가 어떻게 상담심리학자 및 상담종사자들의 핵심역할이 될 수 있는지, 향후 사회정의를 상담자 교육에 어떠한 방식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정의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사회정의적 훈련을 위해서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사회정의적 접근이 한국에서 상담심리학자들의

역할 중 하나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 다문화 상담이론

다문화 상담이론은 내담자의 연령, 성별, 국적,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성적체성, 직업 등 사회 환경적인 맥락이 내담자의 문제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사회 환경적 맥락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다문화 접근은 사회정의적 접근에 선행해서 등장했던 중요한 접근으로, 사회정의적 접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다문화 상담의 핵심요소를 조명해보는 것은 사회정의적 접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주요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문화 상담이론은 사회가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양해지는 것에 비해 내담자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기존의 중산층 백인 남성 중심의 가치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시작되었다(Sue, Arredondo, & McDavis, 1992).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들이 중산층 백인남성 중심의 가치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때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병리화되면서, 사회의 지배문화와 억압기제가 개인의 발달과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 인식에서 다문화상담은 본격화된 것이다(Arredondo et al., 1996; Goodman et al., 2004; Sue et al., 1982; Toporek & Vaughn, 2010). 다문화 상담이론은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계급주의, 성차별주의, 자문화중심주의, 인종차별주의 등의 사회적인 억압

이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와 관련된다고 강조한다. 내담자의 증상은 내담자가 그러한 억압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한 때의 방편이었을 수 있으므로, 상담자는 내담자들을 병리적으로 평가하기에 앞서 개인이 삶에서 어떠한 억압을 경험하였는지 탐색해야 한다고 다문화 상담은 주장하는 것이다(전중공자, 2008; Constantine, Hage, Kindaichi, & Bryant, 2007; Sue et al., 1992).

소수집단의 내담자가 주류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을 보다 면밀하게 이해하고 그러한 차별경험을 넘어 성장을 꾀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개입과정에서 억압과 임파워먼트는 중심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억압(oppression)은 사회전반에 펼쳐있는 불평등, 즉 차별, 편견, 편협한 태도 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 조직적인 차별, 편견, 편협한 태도 등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어떻게 융합되고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Bell, 2007). 곤궁한 처지에 있는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내담자가 경제적으로 무력하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억압적인 조건을 민감하게 고려하지 않는 상담자라면 이러한 가난과 무력함의 원인을 경제제도나 내담자 주변의 환경적 맥락이 아닌 내담자 안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억압이 사회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또 개인의 삶과 정신건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해하는 상담자라면 내담자의 문제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개인의 억압 경험을 탐색하지 않은 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상담자가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의 억압으로서 내담자에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e et al., 1982).

억압의 작용은 조직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

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 내적 차원에서 작동하기도 한다(Bell, 2007). 앞의 예에 이어서 볼 때, 내담자는 자신의 가난에 스스로가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내면화는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억압의 위치에 있는 개인에게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며, 이런 내면화된 억압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보이는 이러한 내면화된 억압을 취약함, 열등함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해해야 하며, 내담자가 이러한 내적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한 개인이 억압의 기제를 이해함으로써,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즉, 사회에 존재하는 억압 속에서 내담자가 자신이 어떻게 사회화되었는지 이해하고, 자기 고유의 역량을 발견하며,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Kid & Kral, 2005; Wolff, 2014). 임파워먼트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저해했던 방해물들을 확인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며(Toporek et al., 2009),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Rappaport, 1981, p.15). 이러한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성장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를 위한 노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Harro, 2010). 사회체계 내에 존재하는 억압을 이해하게 된 개인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억압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상이한 경험을 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체계 변화를 위한 연대를 형성하게 된다(Harro, 2010). 이러한 임파워먼트는 상담자 자신이 경험하고 함

양해야 할 중요한 역량이기도 하다. 상담자는 자신이 사회화된 기제를 명료하게 이해하고,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억압의 패턴을 인식하며 그 억압적인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인내적 외적으로 다각적인 실천을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자의 다문화 민감성은 저절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므로(Sue et al., 1992),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는 다문화역량을 위한 교육을 권고하는 윤리강령을 꾸준히 수정, 보완해 왔다. 2003년에 출판된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의 지침은 상담전문가들이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과 보다 민감하고 효율적으로 개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문화 교육, 훈련, 연구 등에 관련된 지침을 제시했다(APA, 2003). 특히 이 지침은 모든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우호적인 경향이 있으므로(Hewstone, Rubin, & Willis, 2002), 상담자는 자신이 어떠한 무의식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끊임없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상담자의 노력은 이러한 인식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상담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차이를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역량은 교육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으므로, APA의 지침은 상담자의 문화적 민감성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Brown, Parham, & Yonker, 1996; D'Andrea, Daniels, & Heck, 1991; Pope-Davis & Ottavi, 1994).

한국 사회 또한 최근 급속히 다원화되면서

2000년대 이후 다문화상담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준희, 손은령, 2014; 오은경, 최미, 최한나, 2016). 그러나 이들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상담관련 연구의 주요대상은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 국적이나 인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수의 연구들은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에의 동화, 적응에 용이한 성격특성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외국인에 대한 인식 및 지각에 대한 것이 대다수이다(김동수, 김도환, 정태연, 2011; 김수아, 김태호, 2011; 노경란, 방희정, 2008; 임도경, 김창숙, 2011; 임춘희, 2009; 전재은, 2013; 하정희, 2008). 다문화주의의 지향점은 소수집단의 주류에의 적응 및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소수로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억압적인 경험으로 이어지고 사회에서 병리화되는지를 이해하며, 소수 인종의 경험을 정상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한국의 다문화 연구는 한국인들의 다문화 민감성, 다문화 역량 증진 및 함양으로 그 중심축을 이동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의 영역에는 인종 및 국적 외에도 노인, 아동, 장애, 소수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성소수자, 여성 등 다양한 차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영역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김준희, 손은령, 2014), 다문화 관련 연구의 하위영역을 보다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다문화 상담이론은 주로 개인적 수준에서

차별 및 불평등 등의 이슈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상담심리학자들은 개인적 수준에서의 접근이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지역사회나 공동체, 학교시스템, 여타 조직체계 등 거시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자신의 역할을 확장하게 되었다(Constantine et al., 2007). 내담자가 경험하는 차별 및 불평등은 제도화된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동성애공포증 등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제도적 변화, 사회 환경적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상담심리학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시작된 것이다(Sue et al., 1992; Vera & Speight, 2003).

정의에 해당하는 영어단어인 justice는 적합한, 공정한, 평등한 등의 의미를 가진 *justus*에 그 어원을 두고 있으며, 사회정의(Social Justice, 社會正義)는 인간의 도덕성, 존엄성과 자유 등의 가치를 논하는 철학적 움직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김달효, 2013). Young(1990)은 재화의 공평한 분배를 넘어 사회 내에 도사리고 있는 제도화된 지배구조를 제거하는 것으로 사회정의를 개념화하며, 정의로운 사회일수록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ell(2007)은 재화가 공평하게 분배되고 모든 집단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사회정의를 정의했으며, Prillensky(1997, 1999)는 심리적 안녕에 있어서 분배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 개인의 사회적 지지체계, 고용상태, 거주상태, 차별경험 등의 맥락적 요인이 심리학적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담심리는 사회정의의 등장 이전에도 개인의 안녕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소의 영향을 인

식해왔고(Goodman et al., 2004), Frank Parsons와 같은 학자는 교육과 직업훈련이 이민자 및 소외된 계층의 구성원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하며, 전문가로서 사회문제에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였다(Goodman et al., 2004; O'Brien, 2001). 그러나 사회정의에 대한 상담심리의 관심은 2001년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네 번째 '전미상담심리학회'(The Fourth National Counseling Psychology Conference in Houston)에서 본격화되었다(Goodman et al., 2004). 이때, 사회정의 관련 연구, 활동, 훈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상담심리학자들이 사회정의에 폭넓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상담심리학이 기존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넘어서서 공동체와 정책 수준의 개입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Albee, 1996; Fox, 2003; Martin-Baro, 1994; Prilltensky & Nelson, 2002; Speight & Vera, 2004; Vera & Speight, 2003).

사회정의적 접근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을 가지고 있는지는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ACA)의 옹호역량모형을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상담자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ACA는 면대면 상담을 넘어서 내담자 및 학생들의 성장 및 발달을 위해 상담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시키고 상담자의 사회정의 활동을 강조하기 위해 옹호역량 Task Force를 2002년 구성, 2003년 모형을 채택했다(Lewis, Arnold, House, & Toporek, 2002; Toporek et al., 2009). ACA 옹호역량모형은 내담자 관여의 정도와 개입의 수준 두 차원에 의거하여 개발되었으며, 내담자 관여의 정도에 따라 함께하는 옹호 대 대변하는 옹호로 나뉘지며, 개입의 수준에 따라서는 내담자/학생, 학교/지역사회, 공공영역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Toporek et al., 2009). 결과적으로, 옹호역량모형은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내담자/학생 임파워먼트, 내담자/학생 옹호, 지역사회 협동, 체계 옹호, 공공정보 제공, 사회/정치적 옹호, 체계 옹호, 공공정보제공, 사회/정치적 옹호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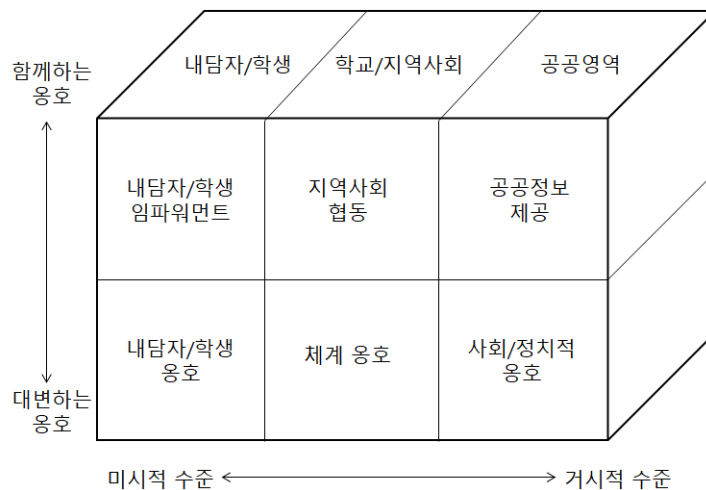


그림 1. ACA 옹호역량

여섯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Toporek et al., 2009).

ACA 옹호모형 중 ‘함께하는 옹호’는 내담자나 관련 공동체 집단이 옹호과정에서 협조하고 참여하는 주체 및 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Mallinckrodt, Miles, & Levy, 2014). 함께하는 옹호는 내담자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내담자/학생 임파워먼트)부터, 공동체 수준에서 해당집단의 문제를 파악하는 요구분석, 요구분석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평가 등을 시행하는 것(지역사회협동), 상담자와 공동체 집단이 미디어나 조직적인 힘을 이용해 해당 공동체 집단의 주요한 이슈를 사회에 알리는 것(공공정보 제공)까지 다양한 역량을 포함한다(Mallinckrodt et al., 2014; Toporek et al., 2009).

내담자를 ‘대변하는 옹호’는 내담자나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참여없이 전문가가 내담자나 해당집단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옹호하는 활동을 지칭한다(Mallinckrodt et al., 2014). 개인수준에서는 특정 내담자를 돕기 위해 한 개인을 설득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직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 내담자를 돕기 위해 상담자가 업체 대표를 설득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Mallinckrodt et al., 2014). 체계옹호는 상담자가 조직 내 불평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불평등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조직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지칭한다(Toporek et al., 2009). 마지막으로 사회적/정치적 옹호는 내담자나 공동체의 문제가 정책적, 입법적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 인식하고, 상담심리학자 뿐만 아니라 법률가, 종교인, 교육자, 정치가들이 모두 모여서 각자의

전문적인 역량을 합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며, 입법 및 정책적 변화를 이루어내는 개입을 의미한다(Kiselica, 2004; Ramirez, Stege, Brockberg, & Hoyt, 2017; 임은미, 2015).

ACA 옹호역량모형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요소 중 특히 거시적 수준에 해당하는 공공정보 제공이나 사회/정치적 옹호는 상담심리학자들에게 낯설게 여겨질 수 있는 영역이나, 정책입안자나 공공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정의 접근의 주요한 영역이다(Marton, & Bishop-Kosef, 2006; Vera & Shin, 2006). 특히, 정책 입안자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내담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은 상담심리학자들의 주요 활동영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상담심리학자의 역할확장 문제는 상담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자질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 즉 상담자 훈련과 연결된다. 따라서 사회정의 관련 역량을 상담심리학자들이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을 이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상담자 교육

Goodman, Liang, Helms, Latta, Sparks, & Weintraub의 연구

사회정의적 접근에 다양한 영향을 준 다문화 상담과 여성주의 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행동을 억압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적응적인 반응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동시에 자신의 강점, 기술, 재능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그 주된 목표를 두고 있다(이지연,



200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Goodman 등(2004)은 다문화상담이론 및 여성주의 상담의 핵심가치, 그리고 저자들 자신의 사회정의 관련 경험을 근거로 사회정의적 접근에서 등장하는 반복적인 주제를 확인했으며, 그러한 주제들을 저자들이 소속된 보스턴 대학 상담심리 박사과정 교과과정에 반영했다. 보스턴 대학 박사과정 생들은 1년차 기간에 1) 지속적인 자기탐색, 2) 힘의 분배, 3) 목소리내기, 4) 의식 고양, 5) 역량강화, 6) 내담자가 사회변화를 위한 도구를 갖추도록 하기 등의 여섯 가지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공동체 및 공공기관, 입법부 등의 기관에서 실습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시스템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소외된 집단을 위해 옹호하는 작업을 하고, 예방적인 접근을 실행해볼 수 있다.

사회정의적 개입을 위한 훈련에서 자기탐색은 그 기반이 되는 영역이다(Goodman et al., 2004).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 사회화 과정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러한 정체성이 위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자기탐색은 자신의 편견을 확인하고 타문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다(APA, 2003; Constantine et al., 2007). 또한 이러한 자기인식이 선행되었을 때,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집단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문제가 사회 표면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다(Harro, 2010).

이러한 자기탐색은 한국의 상담자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와 접할 기회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내담자나 공동체 집단과 작업하기 위한 소양은 다문화 및 사회정의에 대한 교육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상담 계에서 이러한 교육의 기회는 빈약한 실정이다(김혜영, 심혜원, 2014; 주은선, 이현정, 2010). 따라서 상담자 육성과정에서 다문화 상담 및 사회정의 관련 과정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다문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에서 상담자의 자기탐색은 지식이나 기술에 앞서 핵심적인 요소로 상담자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내담자가 소속된 집단의 문제를 공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사회정의적 접근의 주요 활동영역 중 하나이다(Goodman et al., 2004). 해당 집단이 자신의 공동체에 청원을 넣을 수 있도록 돕거나, 법률가, 행정기관, 언론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편지를 함께 쓴다거나,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거나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이 이 영역과 관련된 활동들이다(Goodman et al., 2004; Mallinckrodt et al., 2014; Toporek et al., 2009). 다른 전문가들과 협업 및 의사소통할 때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습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기존의 연구는 상담심리학자들과 입법가 및 정책입안자들의 차이를 조명하며, 상담심리학자들은 과학자로서 훈련받는 과정에서 구체화를 중요시하며 명확한 제안을 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반면, 정책입안자들은 다양한 영역을 넓게 바라보고, 확실한 대답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Choi et al., 2005). 또한 상담심리학자들은 한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증거를

갖추는 것을 중시하나, 정책입안자에게 이러한 태도는 지나친 것일 수 있으므로, 정책입안자와 의사소통 시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면서 정책입안자와의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통계기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Speight, & Vera, 2008).

한편, 사회적 현안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이 해당 공동체와 협력하는 것이 예방적인 접근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의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심리학자들은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인식,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다양한 방안을 꾀할 수 있게 된다(Bond & Hauf, 2007). 해당공동체와의 협력은 그 문화에 가장 적합한 방식의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데 특히 그 의의가 있다. Goodman 등(2004)은 내담자나 해당집단의 토착문화가 무엇이고 어떠한 지지체계를 가지는지 탐색함으로써, 토착문화 내에서 지지체계를 효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심리학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 Mallinckrodt, Miles와 Levy의 과학자-상담자-옹호자 모델

ACA 옹호역량모형과 보스턴 대학의 사회정의의 실습 모델을 혼합하여, Mallinckrodt 등(2014)은 과학자-상담자-옹호자 모델을 소개했다. 과학자-상담자-옹호자 모델은 2007년부터 테네시주립대학 상담심리 박사과정에서 채택되었고, 미국심리학회에서 2009년에 인증받은 훈련모델로, 기존의 과학자-상담자 모델에 조직 및 시스템의 변화를 더하고, 내담자 옹호를 위해

정책입안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Mallinckrodt et al., 2014).

상담자-과학자-옹호자 모델에 필요한 역량으로는 크게 자기인식과 지식 및 기술을 꼽을 수 있다(Mallinckrodt et al., 2014). Goodman 등(2004)이 상담자의 지속적인 자기탐색을 중시했듯이, 상담자-과학자-옹호자 모델 또한 상담심리학자가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고 적절히 통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상담과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담자가 지식 관련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수입, 교육의 기회, 빈부의 차이, 치열한 경쟁구조 등 사회에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동성애차별주의 등의 억압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Mallinckrodt 등(2014)은 이를 위해서는 대인관계 지각, 편견, 태도변화 등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심리학적 지식, 만성적인 스트레스 혹은 영양결핍 등을 이해하기 위한 생물학적인 지식, 역학연구, 참여적 연구, 요구분석평가, 프로그램 평가 등에 대한 연구 방법론적 지식, 역사, 정치학, 사회복지 등의 핵심개념을 학습하면서 사회와 인간을 바라보는 폭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돕는 지식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상담자의 사회정의적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관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Intergroup Dialogue(IGD)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Mallinckrodt et al., 2014). IGD는 인종, 성별, 성적체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등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개인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그 결과, 타집단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증진하도록 돕는 집단상담이다(Zúñiga, Nagda, Chesler, & Cytron-Walker, 2007). IGD를 통해 집

단원들은 서로의 차이에 대해 논쟁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기보다는 타인의 경험을 경청하며, 그러한 경청을 통해, 집단원들이 타집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용하게 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Bohm, 1996; Chen, Thombs, & Costa, 2003; Zúñiga et al., 2007; Zúñiga, Nagda, & Sevig, 2002). 테네시 대학에서는 IGD를 박사과정 학생들이 수강해야 하는 핵심과목으로 지정했으며, 이 과목은 학부과정의 다문화 심리 과목과 연계해서 진행된다. 즉, IGD과목을 수강하는 박사과정 학생 2명이 공동리더로 팀을 지어 8명에서 10명에 해당하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8주간 IGD를 진행하게 되는데, Zúñiga 등(2007)은 집단원들이 집단과정에서 다음의 4개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제시했다: 1) 신뢰로운 관계 형성, 2)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통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 3) 사회 체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 예를 들면 동성혼허용 등에 대한 개방적인 대화, 4) 종결 전, 협력과 행동적 실천에 대한 논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집단원들은 자신의 어려움이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며,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나 구조 등에 의해 생성되어온 하나의 패턴이었음을 깨닫게 된다(Mallinckrodt et al., 2014).

IGD 과정에서 집단원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원을 무시하거나 침묵 속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각자가 겸손, 존중, 개방성을 유지하며 의견의 불일치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Bohm, 1996). IGD가 논쟁이 아닌 대화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다양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섬세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 그 자신의 편견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직면은 변화로 이끌어지기보다는 철수와 방어로 이어지기 쉽다(Kiselica, 2004). 한 개인의 편견에 도전할 때, 직면적인 태도에 공감적인 태도 및 지지적인 태도가 합쳐졌을 때 그 개인은 자신의 태도에 대해 되짚어보고 건설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토양을 형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결국, 억압받는 집단의 열정과 지배집단의 공감적인 대응이 함께 작동했을 때 사회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의견(Ayvazian, 2010; Harro, 2010; Hooks, 2010; Pharr, 2010)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상호이해는 지배집단의 개인들이 소수집단의 입장에서 그 객관적인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연대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Fricre, 2007). 더불어 IGD는 상담자가 자신의 다차원적인 정체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는데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상담자들이 IGD의 리더 혹은 참여자로서 열린 대화를 많이 경험할수록,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와 작업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열린 자세를 갖추게 될 수 있다.

한편, 테네시 대학 박사과정 학생들은 IGD에 이어서 두 학기에 걸친 사회정의 실습수업을 수강하게 되는데, 이 수업 이전에 사회정의 콜로키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필요한 영역 및 단체들에 대해 알게 되고, 최종적으로 두 학기에 걸친 사회정의 실습을 위한 지역사회 단체를 선택하게 된다. 실습기간 동안 학생들은 해당조직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집단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며,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해당 조직에 얼마

나 효과적이었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행하게 된다. 이러한 훈련과정은 Miller와 Sendrowitz(2011)가 제시한 사회정의 훈련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네 가지 지침, 즉 공동체 이슈의 보장, 사회정의적 접근에 정통한 학자 초빙 및 콜로키움 개최, 사회정의적 역량 함양을 위한 세미나, 지역공동체와의 협업 및 수퍼비전 경험 등과 일치한다.

### Lewis의 연구

Lewis(2010)는 대학원생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사회정의 이슈에 민감성을 키울 수 있게 되는지 그 실제적인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Lewis는 사회정의를 분배적(distributive), 절차적(procedural), 상호작용적(interactional)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이 어떻게 상담심리학자의 훈련에 반영될 수 있는지 제시하였다. 분배적 정의는 임금, 교육, 의료서비스 등에서 보상과 책임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Miller, 1999; Lewis, 2010에서 재인용)하는 반면, 절차적 정의는 분배가 진행되는 과정상의 공평성을 말한다(Hegtvedt, 2007; Lewis, 2010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적 정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상, 한 집단의 개개인이 사회에서 어떠한 처우를 받는지에 초점을 맞춘다(Lewis, 2010).

상담자 훈련의 초기 단계에서는 개인수준에 초점을 두는 상호작용적 정의가 상담자 훈련의 주된 영역이 될 수 있다(Lewis, 2010). 내담자가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권리나 기회, 자원에 있어서 불평등한 분배를 경험할 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담자에게 개입해야 하며 (Constantine et al., 2007), 이러한 태도가 가능할

때 상호작용적 정의는 시작된다. 상호작용적 정의는 단순한 의미의 내담자에 대한 존중이 아니며,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서 다른 불평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러한 권리, 기회, 자원을 불평등하게 받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따라왔는지, 거기에 내담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의 다각적 평가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Lewis, 2010). 이러한 평가과정을 통하여 내담자는 불평등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더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고, 앞으로 세상과 부딪혀가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스스로를 준비해보는 연습을 하게 된다.

상담자가 지역사회 내 상담센터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서 상담자들은 지역사회 예산이 내담자에 대한 서비스에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어떠한 내담자들이 상담을 많이 받게 되고, 어떠한 집단이 상담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는지, 상담자 회의에서 더 중요하게 거론되는 내담자 집단이 누구인지, 특정 상담서비스는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지 등을 관찰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Goodman et al., 2004). 이는 사회 제도 내에서 정의과 비정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관련되므로 절차적 정의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Lewis, 2010). 이러한 절차적 정의는 한국 사회에서 상담서비스가 얼마나 다양한 계층에게 접근가능한지 등의 질문과도 관련될 수 있다. 특히 사설상담센터의 지역적 편중 등을 고려했을 때 국적,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수입, 교육수준에 따라 상담서비스가 고르게 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상담서비스가 다양한 집단에게 고르게 이용될 수 있는 방안, 특히, 상담자들이 상담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다가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필요한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분배적 정의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회변화와 가장 관련되며, 사회 내에서 권리, 기회, 자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되는지, 이러한 분배방식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등에 상담자 훈련의 초점이 놓이게 된다(Lewis, 2010).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졌는지 문제가 확인되면, 조직적인 자문이나 사회체계 관련 개입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Mallinckrodt et al., 2014). 여기서 실습은 자문,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수퍼비전, 공공정책의 구현, 타전문가와의 협력 및 의사소통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실습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이나 공공정책, 자문, 로비를 위한 지식 등이 요구된다(Marton & Bishop-Kosef, 2006; Spight & Vera, 2008; Wolff, 2014).

이상으로, 사회정의를 상담자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술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상담심리학자들이 사회정의적 접근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Burnes, & Manese, 2008; Caldwell & Vera, 2010; Toporek & Vaughn, 2010). 상담자 교육에서 특히 중점이 되어야 하는 영역 중 하나는 불평등에 접촉하는 것이다(Beer, Spanierman, Greene & Todd, 2012; Caldwell & Vera, 2010). 직간접적인 불평등 접촉을 통해, 초보 상담심리학자들은 불평등에 대해 더 잘 인식, 억압받는 집단에 대해 공감을 형성하게 되며, 사회정의적 접근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될 수 있다. 상담자들의 사회정의적인 접근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변화를 위한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의에 대한 교육이 이론적인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사회정의적 접근

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을 직접 실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회정의적 접근을 상담자 훈련 교과과정에 적극적으로 녹여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정의와 연구

상담심리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들은 지식의 축적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가 가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Vera & Shin, 2006). 공동체심리학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적 맥락을 중요시하고, 한 개인이 놓인 맥락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Trickett, 1996). 여기서 말하는 맥락적 다양성은 사회정의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다양한 주제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정안숙(2014)은 문화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차원으로 인종적 다양성, 성별, 성정체성 이슈, 사회경제적 지위, 신체·정치적 장애 등을 제시했다. Vera와 Shin(2006)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언급하며, 가난 등의 환경적 취약성을 경험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가정과 환경에 기반한 개입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은 이러한 다양성 내에서도 다차원적 수준이 존재하며, 그 다양한 차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억압, 불평등, 낙인 등이 경험될 수 있다고 제시하는 개념으로, 최근 사회정의와 관련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이다(Rosenthal, 2016). 상호교차성은 여성주의 흑인학자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젊은 흑인여성, 게이흑인 남성, 저소득층 이성애자 흑인남성의 경험

등에 대한 연구들(Bowleg, 2013; Bowleg, Teti, Malebranche, & Tschann, 2013; Settles, 2006)은 불평등 및 차별 속에도 얼마나 복잡한 차원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시각,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은 실질적으로 N포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들의 어려움과 다른 차원에서 맞닿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상호교차성을 이용해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함께 탐색해보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이해하는데 있어 보다 풍부한 접근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정의 연구는 다양한 변인과 관련되는데,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하는 핵심변인 이외에 어떠한 연구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PAR; Kidd & Kral, 2005)는 연구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도울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PAR는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구의 목표 및 방법을 논의하며,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 참여자의 삶에 변화를 창출해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일련의 연구과정이다(Reason, 1994). PAR는 귀납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 자료를 통해 이론을 도출해내는 점, 문제가 확인된 후 탐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질적연구와 그 맥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Ponterotto, 2005; Smith, 1997). 다만, 연구문제의 당사자가 연구에 포함된다는 점은 PAR가 기존의 질적연구와 차별화되는 주요한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Kidd & Kral, 2005).

PAR의 과정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 해결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Reason, 1994). 이

상적으로는 해당집단이 PAR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구자가 이 과정을 주도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을 경우, 연구초반에 연구의 책임소재, 각 구성원의 참여 정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Kidd & Kral, 2005). 연구의 시작 지점에서 연구자는 자신이 해당 주제 및 해당 공동체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구 참여자와 이에 대한 견해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화는 향후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떠한 액션이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이 연구의 방법에 해당한다(McTaggart, 1997; Kidd & Kral, 2005에서 재인용). 어떠한 액션이 취해져야 하는지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제한도 없으며, 궁극적으로 한 집단의 성장을 저해하는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이라면 무엇이든지 액션에 포함될 수 있다.

Kidd와 Kral(2005)은 장애인 집단과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장애인 쇼핑센터 접근성에 대한 워크숍 개최, AIDS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집단 이후 에이즈 환자에 대한 구직프로그램 실시 등을 PAR의 예로 들었다. 에이즈 환자 및 HIV 감염인 집단은 한국에서도 편견과 차별, 낙인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PAR의 과정은 이들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경감시키고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식하도록 돕는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연구자와 참여자인 에이즈 환자 혹은 HIV 감염인 집단은 자신들에 대해 어떠한 차별적인 태도가 존재하는지, 불평등한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 함께 탐색해보고, 이를 통해 에이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에이즈 환자 및 HIV 감염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

안들을 함께 도출할 수 있다.

연구자와 참여자의 경험과 지식이 결합되어서 이전에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문제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고안하는 것이 PAR가 추구하는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학계에서 PAR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연구비 조달이나 연구 성과 산정 등에서 연구자는 불이익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Kidd & Kral, 2005). 이는 PAR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사회정의와 관련된 연구 전반에 걸친 문제로, 전통적인 형태와 다른 이러한 연구들이 사회 및 학생들의 학습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대학 및 학계에 끊임없이 호소하여 사회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학술활동이 연구업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상담심리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 향후 필요하다(Kiselica, 2004).

### 한국사회와 사회정의

한국사회는 비약적인 경제 및 기술 성장을 이루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인들은 심리적으로 여유롭고 안정적이기보다는 생존과 경쟁에 지나치게 몰입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이고 있다(이순열, 2015). 이순열(2015)은 사회나 조직이 인간성과 생명존중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상대적 우월감이나 성취에 열중하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았는데, 실제로 상담심리학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내담자들의 주호소에서 이러한 모습은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심리학자들이 전통적인 세팅과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와 조직 속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낮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사회적 변화가 내담자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거시적인 관점을 채택할 필요는 이미 심리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몇 년 전 한국사회에 큰 슬픔과 충격을 주었던 세월호 사건 이후 상담심리학자들은 자원봉사 등의 형태로 그 역할을 수행했고, 이는 이후 국립 트라우마 센터건립이나 다른 전문가 집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이어졌다(박주연, 2014; 안현의, 2014; 이순열, 2015; 정안수, 2015). 최근, 포항지진 관련해서도 한국상담심리학회는 발빠르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담심리학자들의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여성에 대한 혐오 및 폭력, 성소수자의 인권과 법률에 관련한 논란, 장애아동 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지역기반의 찬반여론, 흡수저와 금수저로 대변되는 신사회계급의 등장 및 상대적 박탈감, 다양한 영역에서의 갑질논란, 보복운전, 높은 자살률, 잔혹해지는 청소년 폭력 등 심리적인 기제가 깔려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당면해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개인적, 미시적 접근은 그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내담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교육, 워크숍 개최, 국회의원과의 협조관계 구축, 법률가 등과의 협업 등의 접근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HIV 감염인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워크숍 개최,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국회의원과의 협업,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경험을 막기 위한 성폭력에 대한 강연,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신건강의 관련

성에 대한 연구 등은 상담심리학자들이 전문가로서 소수집단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예이다.

사회변화로써의 활동이 개인 상담자의 움직임이 아닌, 학회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더욱 원활하게 작동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상담심리학자의 거시적 활동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와 사회정의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Sue et al., 1992). 따라서, 다문화 상담 및 사회정의에 대한 교육이 대학원 교과과정 및 학회차원의 제반교육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회윤리강령에서 다문화 및 사회정의적 접근을 상담심리학자의 주요영역으로 포함하고 그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학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다른 분야는 입법기관과 연계한 학회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등이 될 수 있다. APA의 옹호관련 활동은 한국심리학회에도 제시하는 바가 크다. APA는 삶의 증진, 즉 옹호를 그 핵심활동으로 삼고, 불평등한 의료제도, 군 정신건강 증진, 교육제도, 심리학 연구 강화, 심리학자 양성 교육, 이민제도, 사회경제적 지위, 범죄, 폭력, 자살 등에 관련한 다양한 연방정책과 법률을 옹호하는데 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APA Congressional Fellowship Program을 통해 심리학자들이 입법기관과 상호작용하며 심리학적 지식을 정부활동에 활용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돕는 등 심리학자들이 거시적 측면의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학회 차원에서 고려해 봐야 할 중요한 측면으로, 향후 관련되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상담심리학자들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그 역할을 확장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변화를 위한 방안을 꾀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여야 한다는 제안 하에, 사회정의적 접근이 무엇이며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거시적 관점의 강조가 미시적 관점, 개인적인 접근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모두를 채택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했을 때 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므로(Kiselica, 2004), 기존에 상담심리학자들이 채택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에 새로운 방식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소개한 다문화 상담과 사회정의적 접근은 대부분 북미의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므로, 그 모델을 한국의 문화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타문화의 이론을 가져올 때, 이론의 핵심으로서 변용해서는 안 될 부분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변용해야 하는 요소가 있으므로(정안숙, 2015), 한국사회의 토양을 반영하여 사회정의의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논의가 향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위계적인 문화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는 것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나 상담자 자신의 불안정한 위치로 인한 역할 확장의 부담감 등은 한국에서 사회정의를 상담심리학자의 역할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은 상담심리가 사회정의를 그 핵심영역으로 포함하는 과정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상담심리학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문화에 걸맞은 사회정의적 접근이 그 기틀을 자리 잡는 데 본 논문이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 구자란 (2010). 상담자의 사회정의옹호에 따른 소수 및 다수집단 내담자에 대한 인상형성.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달호 (2013). 사회정의의 역사적 배경, 개념, 유형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19, 193-219.
- 김동수, 김도환, 정태연 (2011). 외국인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인식: 6개 외국인 집단대 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1-23.
- 김수아, 김태호 (2011).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 적 정체감 발달단계에 따른 차별지각과 차별대처방식. 다문화교육연구, 4(1), 1-17.
- 김춘희, 손은령 (2014). 국내 다문화상담연구 현황. 상담학연구, 15(6), 2209-2223.
- 김혜영, 심혜원 (2014). 다문화아동상담 교육실 태 및 상담자 역량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 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지, 1, 284-284.
- 노경란, 방희정 (2008). 한국대학생과 국내체류 외국대학생 간에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 회 및 성격, 22(4), 75-92.
- 민문경, 안현의 (2014). 사회 인지 관점에 따른 사회 정의 관심과 실천 모형의 검증: 국 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2), 133-154.
- 민문경, 이나빈, 안현의 (2015). 공감 능력이 사회 정의 실천에 미치는 영향: 사회 인 지적 관점에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4), 575-594.
- 박주언 (2014). 심리사회적 지원의 구축방향에 따른 전문가 지원 및 협업시스템. 한국심 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지, 1, 93-93.
- 안현의 (2014). 특별심포지엄 1: 재난 후 심리 사회적 복구: 세월호 사고는 우리에게 무 엇을 남겼나, 세월호 사고 관련 한국심리 학회의 활동 보고 및 향후 방안제안. 한국 심리학회지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91-91.
- 오은경, 최 미, 최한나 (2016).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 동향: 학술지 및 학위 논문 분 석(1993~2016). 상담학연구, 17(5), 223-242.
- 이나빈, 안현의 (2016). 생태체계이론에 기반한 재난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변인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4), 525-562.
- 이순열 (2015). 한국사회의 위협에 대한 심리 학적 접근과 제언: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 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3), 709-739.
- 이지연 (2004). 여성주의 상담의 적용실제와 방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73-791.
- 임도경, 김창숙 (2011).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 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거 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언어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일반, 19(1), 5-34.
- 임은미 (2015). 학교장면에서의 옹호상담 방안 탐색. 교육학연구, 53(3), 119-140.
- 임은미 (2016). 한국 상담자를 위한 사회문제 옹호 척도(SIAS)의 타당성 검증. 상담학연 구, 17(4), 51-70.

- 임은미, 여영기 (2015). 사회정의 상담: 저출산 시대 진로진학상담의 새로운 방향. *교육융합연구*, 13(3), 141-161.
- 임춘희 (200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93-112.
- 전재은 (2013). 한국 대학생의 이문화 역량에 대한 이해와 행동반응. *아시아교육연구*, 14(3), 231-259.
- 전중공자 (2008). 다문화 사회에 심리학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일본의 과제.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1, 83-91.
- 정안숙 (2015). 현대한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의 역할: 공동체심리학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3), 667-683.
- 주은선, 이현정 (2010).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상담 관련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17-846.
- 하정희 (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73-496.
- Albee, G. W. (1996). Revolutions and counterrevolution in prevention. *American Psychologist*, 51(11), 1130-1133.
- Albee, G. W. (2000). The Boulder model's fatal flaw. *American Psychologist*, 55(2), 247-248.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Guidelines on multicultural education, training, research, practice, and organizational change for psychologists. *American Psychologist*, 58(5), 377-402. doi:10.1037/0003-066X.58.5.377
- Arredondo, P. Toporek, R. Brown, S. P., Jones, J., Locke, D. C., Sanchez, J., & Stadler, H. (1996). Operationalization of the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4(1), 42-78. doi: 10.1002/j.2161-1912.1996.tb00288.x
- Ayvazian, A. (2010). Interrupting the cycle of oppression: The role of allies as agents of change. In M. Adams, W. J. Blumenfeld, C. R. Castañeda, H. W. Hackman, M. L. Peters, & X. Zúñiga (Eds.), *Readings for diversity and social justice* (2nd ed.), pp. 124-133. New York: Routledge.
- Beer, A. M., Spanierman, L. B., Greene, J. C., & Todd, N. R. (2012). Counseling psychology trainees' perceptions of training and commitments to social just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1), 120-133. doi: 10.1037/a0026325
- Bell, L. A. (2007). Theoretical foundations for social justice education. In M. Adams, L. A. Bell, & P. Griffin (Eds.), *Teaching for diversity and social justice* (2nd.), pp. 1-14. New York: Routledge.
- Bohm, D. (1996). *On dialogue*. New York: Routledge.
- Bond, L. A., & Hauf, A. M. C. (2007). Community-based collaboration: An overarching best practice in preven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5(4), 567-575. doi: 10.1177/0011000006296159
- Bowleg, L. (2013). "Once you've blended the cake, you can't take the parts back to the main ingredients": Black gay and bisexual men's descriptions and experiences of intersectionality. *Sex Roles*, 68(11), 754-767. doi: 10.1007/

- s11199-012-0152-4
- Bowleg, L., Teti, M., Malebranche, D. J., & Tschann, J. M. (2013). "It's an uphill battle everyday": Intersectionality, low-income Black heterosexual men, and implications for HIV prevention research and intervention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4*(1), 25-34. doi: 10.1037/a0028392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S. P., Parham, T. A., & Yonker, R. (1996). Influence of a cross-cultural training on racial identity attitudes of Whit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5), 510-516.
- Burnes, T. R., & Manese, J. E. (2008). Social justice in an accredited internship in professional psychology: Answering the call.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2*(3), 176-181. doi: 10.1037/1931-3918.2.3.176
- Burnes, T. R., & Singh, A. A. (2010). Integrating social justice training into the practicum experiences for psychology trainees: Starting earlier.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4*(3), 153-162. doi: 10.1037/a0019385
- Caldwell, J. C., & Vera, E. M. (2010). Critical incidents in counseling psychology professionals' and trainees' social justice orientation development.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4*(3), 163-176. doi: 10.1037/a0019093
- Chen, E. C., Thombs, B. S., & Costa, C. I. (2003). Building connection through diversity in group counseling: A dialogue perspective. In D. B. Pope-Davis, H. L. K. Coleman, W. M. Liu, & R. Toporek (Eds.), *Handbook of multicultural competencies in counseling and psychology* (pp. 456-477). Thousand Oaks, CA: Sage, doi: 10.4135/9781452231693.n29
- Choi, B. C., Pang, T., Lin, V., Puska, P., Sherman, G., Goddard, M., Ackland, M. J., Sainsbury, P., Stachenko, S., Morrison, H., & Clotney, C. (2005). Can scientist and policy makers work together?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9*(8), 632-637. doi: 10.1136/jech.2004.031765
- Constantine, M. G., Hage, S. M., Kindaichi, M. M., & Bryant, R. M. (2007). Social justice and multicultural issues: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and training of counselors and counseling psychologis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5*(1), 24-29. doi: 10.1002/j.1556-6678.2007.tb00440.x
- D'Andrea, M., Daniels, J., & Heck, R. (1991). Evaluating the impact of multicultural counseling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1), 143-150.
- Fox, D. R. (2003). Awareness is good, but action is better.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1*(3), 299-304. doi: 10.1177/0011000003252956
- Friere, P. (2007).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 Goodman, L. A., Liang, B., Helms, J. E., Latta, R. E., Sparks, E., & Weintraub, S. R. (2004). Training counseling psychologists as social justice agents: Feminist and multicultural principles in ac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1), 11-24. doi: 10.1177/0011000004262956

- 32(6), 793-837. doi: 10.1177/0011000004268802
- Harro, B. (2010). The cycle of liberation. In M. Adams, W. J. Blumenfeld, C. R. Castañeda, H. W. Hackman, M. L. Peters, & X. Zúñiga (Eds.), *Readings for diversity and social justice* (2nd ed.), pp. 52-58. New York: Routledge.
- Hewstone, M., Rubin, M., & Willis, H. (2002). Intergroup bia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575-604. doi:10.1146/annurev.psych.53.100901.135109
- Hooks, B. (2010). Feminism: A movement to end sexist oppressions. In M. Adams, W. J. Blumenfeld, C. R. Castañeda, H. W. Hackman, M. L. Peters, & X. Zúñiga (Eds.), *Readings for diversity and social justice* (2nd ed.), pp. 337-339. New York: Routledge.
- Ivey, A. (2008). Review of handbook for social justice in counseling psychology: Leadership, vision, and action.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1), 83-84. doi 10.1037/1099-9809.14.1.83
- Kidd, S. A., & Kral, M. J. (2005). Practicing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87-195. doi: 10.1037/0022-0167.52.2.187
- Kiselica, M. S. (2004). When duty calls: The implications of social justice work for policy, education and practice in the mental health profess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6), 838-854. doi: 10.1177/0011000004269272
- Lewis, B. L. (2010). Social Justice in practicum training: Competencies and developmental implications.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4(3), 145-152. doi: 10.1037/a0017383
- Lewis, J., Arnold, M. S., House, R., & Toporek, R. L. (2002). *ACA Advocacy Competencies*. Advocacy Task Force,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Retrieved from <http://www.counseling.org/resources/html>
- Mallinckrodt, B., Miles, J. R., & Levy, J. J. (2014). The scientist-practitioner-advocate model: Addressing contemporary training needs for social justice advocacy.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8(4), 303-311. doi: 10.1037/tep0000045
- Martin-Baro, I. (1994). *Writings for a liberation psych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ton, K. I. & Bishop-Kosef, S. J. (2006). Psychological research, practice, and social policy: Potential pathways of influenc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7(2), 140-145. doi: 10.1037/0735-7028.37.2.140
- Miller, M. J., & Sendrowitz, K. (2011). Counseling psychology trainees' social justice interest and commi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159-169. doi: 10.1037/a0022663
- O'Brien, K. M. (2001). The legacy of Parsons: Career counselors and vocational psychologists as agents of social chang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0(1), 66-76.
- Pharr, S. (2010). Reflections on liberation. In M. Adams, W. J. Blumenfeld, C. R. Castañeda, H. W. Hackman, M. L. Peters, & X. Zúñiga (Eds.), *Readings for diversity and social justice* (2nd ed.), pp. 591-598. New York: Routledge.

- Ponterotto, J. G. (2005). Qualitative research in counseling psychology: A primer on research paradigms and philosophy of sci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26-136.
- Pope-Davis, D. B., & Ottavi, T. M. (1994).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xpressed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demographic variables among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6), 651-660.
- Prilltensky, I. (1997). Values, assumptions, and practices: Assessing the moral implications of psychological discourse and action. *American Psychologist, 52*(5), 517-535.
- Prilltensky, I. (1999). Critical psychology foundations for the promotion of mental health. *Annual Review of Critical Psychology, 95*-112.
- Prilltensky, I., & Nelson, G. (2002). *Doing psychology critically: Making a difference in diverse setting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Ramírez Stege, A. M., Brockberg, D., & Hoyt, W. T. (2017). Advocating for advocacy: An exploratory survey on student advocacy skills and training in counseling psychology.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11*(3), 190-197. doi: 10.1037/tep00000158
- Rappaport, J. (1981). In praise of paradox: A social policy of empowerment over preven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1), 1-25.
- Reason, P. (1994). Human inquiry as discipline and practice. In P. Reason (Ed.), *Participation in human inquiry* (pp. 40-56). Thousand Oaks, CA: Sage.
- Rosenthal, L. (2016). Incorporating intersectionality into psychology: An opportunity to promote social justice and equity. *American Psychologist, 71*(6), 474-485. doi: 10.1037/a0040323
- Settles, I. H. (2006). Use of an intersectional framework to understand Black women's racial and gender identities. *Sex Roles, 54*(9-10), 589-6011.
- Smith, S. E. (1997). Deepening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In S. E. Smith, D. G. Wilms, & N. A. Johnson (Eds), *Nurtured by knowledge: Learning to do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p. 173-264). New York: Apex Press.
- Speight, S. L., & Vera, E. M. (2004). A social justice agenda: Ready or no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1), 109-118. doi: 10.1177/0011000003260005
- Speight, S. L., & Vera, E. M. (2008) Social justice and counseling psychology: A challenge to the profess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4th ed.) (pp. 54-67). Hoboken, NJ: Wiley & Sons.
- Sue, D. W., Arredondo, P. & McDavis, R. J. (1992).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20*(2), 64-88.
- Sue, D. W., Bernier, J. E., Durrant, A., Feinberg, L., Pedersen, P., Smith, E. J., & Vasquez-Nuttal, E. (1982). Position paper: Cross-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2), 45-52.
- Teyber, E. (2000).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Belmont, CT: Wadsworth/Thomson Learning.

- Toporek, R. L., Lewis, J. A., & Crethar, H. C. (2009). Promoting systemic change through the ACA advocacy competenc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7*(3), 260-268. doi: 10.1002/j.1556-6678.2009.tb00105.x
- Toporek, R. L., & Vaughn, S. R. (2010). Social justice in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psychologists: Moving forward.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4*(3), 177-182. doi: 10.1037/a0019874
- Trickett, E. J. (1996). A future for community psychology: The contexts of diversity and the diversity of contex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2), 209-234.
- Vera, L. M. & Shin, R. Q. (2006). Promoting strengths in a socially toxic world: Supporting resilience with systemic interven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1), 80-89, doi: 10.1177/0011000005282365
- Vera, E. M., & Speight, S. L. (2003). Multicultural competence, social justice, and counseling psychology: Expanding our roles. *The Counseling Psychology, 31*(3), 253-272. doi:10.1177/0011000002250634
- Wolff, T (2014). Community psychology practice: Expanding the impact of psychology's work. *American Psychologist, 69*(8), 803-813. doi:10.1037%2Fa0037426
- Young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Zúñiga, X., Nagda, B. A., Chesler, M., & Cytron-Walker, A. (2007). Intergroup dialogue in higher education: Meaningful learning about social justice. *ASHE Higher Education Report, 32*(4), 1-128.
- Zúñiga, X., Nagda, B. A., & Sevig, T. D. (2002). Intergroup dialogues: An educational model for cultivating engagement across differences. *Equity & Excellence in Education, 35*(1), 7-17. doi:10.1080/713845248

원 고 접 수 일 : 2017. 10. 10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3. 16

게 재 결 정 일 : 2018. 03. 28

## Social Justice and Counseling Psychologists' Roles

Gahee Choi

Keimyung University

Given the influence of socio-environmental factors on clients' presenting problems, there have been calls for counseling psychologists to expand their role beyond tradition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nd to embrace social justice principles. Whereas counseling psychologists should develop self-awareness and cultural sensitivity to work with clients from marginalized groups, counseling psychologists also contribute to social change by adopting a macro-level approach and helping social problems more visible. This article introduces concepts of social justice, starting from definition of social justice to discussion of multicultural counseling theory, implementation of social justice, and social justice training models. Finally, this article discusses how to conduct social justice research, specifically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Key words* : socio-environmental factors, social justice, multicultural counseling, training model